

# 국창 임방울 예술혼 기리다... '제33회 임방울 국악제'

내달 12-15일 빛고을시민문화관 등 대통령상 등 총상금 1억9천8백만원 판소리 장기자랑·전야제 행사 '다채'



국창 임방울 선생

국창 임방울의 숭고한 예술혼을 기리고 국악 신인을 발굴하기 위한 '제33회 임방울국악제 전국대회'가 오는 9월12일부터 15일까지 4일간 열린다.

대회는 빛고을시민문화관 대공연장을 비롯한 8개 경연장에서 펼쳐지며 경연과 함께 축하 공연, 추모 행사 등이 진행된다.

(사)임방울국악진흥회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12일 오전 광주향교 유림회관에서 열리는 '임방울 판소리 장기자랑 대회'로 막을 올린다. 판소리에 관심 있는 19세 이상 아마추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대회로, 해를 거듭할수록 전국 국악 동호인들의 관심과 참여가 많아지고 있다. 입상자 50명에게 총 1천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같은 날 오후 2시에는 광주예술의전당 내 임방울 동상 앞에서 국악제 성공 개최를 기원하는 추모행사가 열리며, 오후 6시10분에는 전야제 축하공연이 펼쳐진다.

전야제에선 국창 조상현의 인생 여정을 담은 특별 초청 무대를 비롯해 제2회 농악 최우수상을 수상한 국태비단 농악단의 풍물판굿이 무대에 오른다.

지난해 대통령상 수상자 정은혜 명창이 선사



사진 왼쪽부터 국창 조상현, 정은혜 명창, 황소희 명무, 김산옥 명인, 임재현 명인.



하는 국창 임방울의 애장곡 '쑥대머리', 제2회 무용일반부 문체부장관상 수상자 황소희 명무의 춤사위도 만나볼 수 있다.

이어 조선판스타 우승자인 김산옥 명인과 임재현 명인이 '강원도 아리랑', '못 찾겠다 꾀꼬리', 국악인 오정혜의 '상주 아리랑', '진도 아리랑'을 들려준다.

젊은 소리꾼 김준수는 '수궁가 중 토끼 잡아들이는 대목'과 '돌고 돌아가는 길' 등 전통과 현대가 융합된 무대를 꾸민다.

마지막 무대는 김정훈·이병욱·서의철·김기

진 명창이 함께하는 남도민요 '흥타령', '개고리 타령'으로 장식한다.

13일에는 학생부 예·본선이 5·18기념문화센터 등 3곳에서 열린다. 판소리, 기악, 무용 부문 수상자 40명에게 총 3천19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14-15일에는 일반부·명창부 경연이 진행되며 15일 낮 12시 빛고을시민문화관 대공연장에서 국내 최고의 국악 명인을 발굴하는 판소리 명창부, 기악, 무용 부문 본선 무대가 치러진다.

판소리 명창부 대상 수상자에게는 대통령상

과 상금 5천만원이 주어지며 각 부문별로 국회의장상, 국무총리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등 총 1억9천8백만원 규모의 상금이 수여된다. 본선 실황은 TV조선을 통해 전국에 생중계된다.

김중재 (사)임방울국악진흥회 이사장은 "임방울국악제는 투명한 운영과 공정한 심사, 수상자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으로 전국 최고 권위의 대회로 자리 잡았다"며 "앞으로도 국악의 성지 광주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풍류의 한마당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명진 기자

## 광주시·독일 라이프치히 우호교류 '예술로 빛나다'

### '성 토마스 합창단' 광주서 첫 내한공연

내달 11일 광주예술의전당

독일 '성 토마스 합창단'(사진)이 광주에서 내한공연을 갖는다.

20일 광주시에 따르면 우호도시 독일 라이프치히 '성 토마스 합창단'이 오는 9월11일 광주예술의전당에서 첫 내한공연을 한다.

성 토마스 합창단은 2012년 광주시와 우호협력협정을 체결한 독일 라이프치히시에 소속된 소년합창단으로 1212년 설립해 800년 이상의 역사를 지니고 독일의 대표 합창단이다.

'음악의 아버지' 요한 제바스티안 바흐가 1700년대 단장이자 지휘자를 의미하는 토마스칸토르(Thomaskantor)로 재직하며 그의 마태수난곡·오라토리오·칸타타 대부분을 초연한 곳으로 유명하다.

합창단의 주요 레퍼토리는 바흐 뿐만 아니라 그레고리오 성가, 현대 음악에 이르기까지 전 시대의 합창곡을 아우른다.

매주 성 토마스 교회에서 예배 음악을 담당하며 매년 2천500명 이상의 청중을 불러모은다. 20세기 들어 활발한 해외공연을 통해 국제적



명성을 얻었으며 라이프치히의 문화대사로써 전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고 있다.

광주시와 라이프치히시는 지난 10여 년 동안 인권·문화·예술 분야에서 교류하고 있으며 성 토마스 합창단의 사상 첫 광주공연은 양 도시의 우호관계를 바탕으로 성사됐다. 이번 공연은 2021년 성 토마스 합창단의 제18대 칸토르 안드레아스라이즈의 취임 후 최초의 내한공연이다.

광주예술의전당을 시작으로 부산콘서트홀, 부천아트센터, 통영국제음악당 등 국내 유명 공연장에서 한국 순회 공연을 이어갈 예정이다.

/변은진 기자

## 남도 한국화에 투영된 예술의 의미와 가치

27일 광주시립미술관 런치토크

호남 남종화의 세계와 한국화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강좌가 마련됐다.

광주시립미술관은 오는 27일 낮 12시 미술관 세미나실에서 이선옥(사진) 의재미술관장을 초청 특강을 연다.

'남도 한국화의 흐름과 한국화 감상'을 주제

로 하는 이번 강좌는 미술관에서 진행 중인 남도 한국화 명작전 '마음, 예술가의 혼을 담은 한국화' 연계 행사다. 다양한 의미를 지닌 남도 한국화의 진수를 감상하고 그 가치를 배워볼 수 있는 자리다.

이번 강좌로 나서는 이선옥 의재미술관장은 서울대 대학원 고고미술사학과에서 석사학위를,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조선시대 매화도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호남 한국화단과 문인들의 마음을 담은 그림, 서화 활동을 중심으로 전시, 연구 활동을 해오고 있다.

한편 이번 강좌는 수강생들이 점심 식사를 하며 편안하게 강좌를 듣는 런치토크 형태로 진행되며, 광주시립미술관 누리집에서 선착순 50명 사전 접수를 받는다. /최명진 기자



### 명실명실~탈춤과 굿의 만남

허창열 초청공연, 23일 남도국악원

무더운 여름, 남녀노소 누구나 웃고 즐길 수 있는 흥겨운 한마당이 펼쳐진다.

국립남도국악원은 오는 23일 오후 3시 허창열 초청공연 '허창열의탈, 굿'을 선보인다.

'허창열의탈, 굿'은 '제11회 이데일리 문화대상(2024년)' 무용 부문 최우수작으로 선정된 작품이다. 국가무형유산 고성오광대 이수자이자 천하제일탈공작소를 운영하는 허창열이 꾸미

는 탈춤과 굿 무대다. 고성오광대 탈춤을 추던 허창열이 다양한 장르의 전통예술인들과 함께 한바탕 즐기는 판을 풀어낸다.

이번 공연은 동해안별신굿당금에기 설화와 중타령 대목을 접목한 '승무'로 시작된다. 이 무대에는 허창열의 탈춤과 박해미의 소리가 함께한다.

이어 허창열이 나서 남해안별신굿 선왕풀이를 바탕으로 한 '축원', 고성오광대 중 제1과장 '문동복춤'을 선보인다.

진도다시래기 전승교육사 강민수의 소리와 재담으로 만나는 '놀부 심술 대목'과 고성오광대 제3과장 비비마당을 놀부와 비비의 재담 놀음으로 재구성한 '비비마당', '태평소 시나위' 무대도 마련됐다. 공연의 대미는 허창열의 '덧배기춤'으로 마무리된다. /최명진 기자

# CBS가 한국교회와 함께 기후·생명 회복을 위한 행동에 나섭니다



- 기후·생명 회복을 위한 <환경주일 목회서신·공동기도문> 채택
- 창조질서 회복을 위한 <생명의 숲 조성> 캠페인 확산
- 기후난민공동체 지원 사업 전개
- 교회학교 교사들을 위한 생태보존 교육 실시

CBS, (사)푸른아시아, 한국교회 15개 주요 교단, 환경부 '기후·생명회복을 위한 공동협약 체결 기후·생명회복을 위한 생명의 숲 조성 운동본부 출범' 2022. 4. 26

